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21년 7월

본 자료는 전월(2021.6.1.~2021.6.30.) 제공되었던 주요 동향 및 주요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목차

Ⅰ.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유럽 ETSI, 2021-2022 작업계획 발간 21.04.25
2. IETF, QUIC, TSVWG 등 인터넷 전송 기술 개발 워킹그룹 소개 21.06.03
3. 독일 DIN-DKE, 유럽연합의 AI 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21.06.09
4. 독일 DIN, 연방하원의회에 유럽 차원의 표준화 규제 및 구조에 대해 제안 21.06.09
5. 영국 BSI, '자율주행차량 안전성 벤치마킹 보고서' 발간 21.06.16

Ⅱ.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6. 미국,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최종보고서 발표 21.03.01
7. 미 의원, 기술표준제정의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법안 제출 21.05.03
8. 유럽연합, '유럽의 디지털 10년' 기념 디지털어셈블리 2021 개최 21.05.31
9. 유럽연합, 연구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발표 21.06.03
10. 유럽연합, 유럽 디지털 ID 프레임워크 제안 21.06.03
11. GPAI, AI의 책임 작업그룹(RAI WG) 2021년도 주요 프로젝트 소개 21.06.03
12. 독일연방의회, '지정학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표준화' 논의 21.06.07
13. G7, 정상선언문 발표 – 디지털 기술 표준 협력 프레임워크 지지 21.06.13
14. 미국-EU, 무역 및 기술협의회 출범 합의 21.06.15

Ⅲ.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15. ISO TC211 WG1 (공간 정보, 프레임워크 및 참조 모델 작업그룹) 21.06.07
16. OGC Aviation DWG (항공 분야 작업그룹), UxS DWG (무인시스템 분야 작업그룹) 21.06.14

Ⅰ.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유럽 ETSI, 2021-2022 작업계획 발간 (06월 09일)

ETSI는 "2021-2022 작업계획(Work programme)"을 발간하였다. 작업 계획은 ETSI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며, 무선 시스템(Beyond mobile과 주파수 효율성), 보안, 연결성(Connecting Things), 네트워크, 교통, 콘텐츠 전송, ICT와 함께하는 더 나은 삶, 집과 사무실, 공공안전, 시험 및 상호운용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무선 시스템- Beyond mobile : 3GPP 활동

2) 무선 시스템- 주파수 효율성 :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과 무선 장비 지침,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 밀리미터 파(mmW) 전송, 변경가능한 무선 시스템, 광대역 무선 접속 네트워크, 위성 시스템, 모바일 표준, 조화 표준

3) 보안 : 사이버 보안 양자 보안 암호화, 양자키 분배, 보안 알고리즘, 암호화된 트래픽 통합, 합법적 차단 및 데이터 보존, AI 보안, 스마트카드와 보안요소, 전자서명, 분산원장

4) Connecting Things : oneM2M, M2M(machine to machine) 통신,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 구축, 문맥 정보(Context information) 관리, e-보건의료, 팬데믹 보호, 인체 영역 통신망

5) 네트워크 : 네트워크 성능 가상화, MANO 오픈소스,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MEC), 경험적 네트워크화 지능, 제로터치 네트워크와 서비스 관리, IPv6, non-IP 네트워킹, 5G 네트워크, 케이블

6) 교통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항공, 철도, 해상

7) 콘텐츠 전송 : 방송, 방송 스펙트럼 및 콘텐츠 생성, 증강현실(AR)

8) ICT와 함께하는 더 나은 삶 : ICT 제품 확산 및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ICT(휴먼팩터), 미디어 품질, 안전

9) 집과 사무실 : DECT-2020 *DECT: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

10) 공공안전 :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와 긴급 통신, 응급전화 및 경보

11) 시험 및 상호운용성 : 시험 및 규격 방법, 상호운용성 보장, 플러그테스트, 시험 규격 및 프레임워크

☞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news/1931-etsi-publishes-new-work-programme

3. IETF, QUIC, TSVWG 등 인터넷 전송 기술 개발 워킹그룹 소개 (06월 03일)

IETF의 활동을 구분하는 7개 Area 중 하나인 '전송(Transport) Area'는 네트워크 스택에서 전송 층의 프로토콜 개발을 담당하며, TCP, UDP 및 SCTP와 같이 확립되어 있는 핵심 프로토콜의 확장을 개발하고 있는 워킹그룹을 소개한다.

전송 Area의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 워킹그룹은 보안, 안전성, 멀티플렉싱, 낮은 설정 지연시간, UDP를 활용한 멀티 호밍 등을 지원하는 QUIC 전송 프로토콜과 QUIC 프로토콜에서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첫 사례로 HTTP/3을 개발 중이다. 이는 이미 인터넷에 배포되었으며, 표준 측면에서 다른 네트워크 구조로의 추가 배포 지원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TSVWG(Transport Area Working Group)은 "저 지연, 저 손실, 고용량" 서비스 아키텍처를 작업 중이며, 효율적인 인터넷의 사용과 전력 소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MTU(Maximum transmission units)를 결정하는 절차를 업데이트한 RFC 8899 표준을 최근 발표하였다.

☞ (기사원문) https://www.ietf.org/blog/new-era-transport/

3. 독일 DIN-DKE, 유럽연합의 AI 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06월 09일)

독일 표준화기관인 DIN과 DKE는 지난 4월 21일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 제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DIN과 DKE는 위원회가 제안한 AI 규제 및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 원칙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 표준화기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협력을 지속 발전
- 집행위원회는 유럽표준화기구와 협력하여 AI 표준화 요청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응
- AI 규제 제41조 "공통 사양(common specifications)" 삭제
- 설립 예정인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작업에 유럽표준화기구의 참여

☞ (기사원문) https://www.din.de/de/din-und-seine-partner/presse/mitteilungen/standards-als-zentraler-baustein-der-europaeischen-ki-regulierung-800318

4. 독일 DIN, 연방하원의회에 유럽 차원의 표준화 규제 및 구조에 대해 제안 (06월 09일)

독일 DIN은 연방하원의회에서 발간한 '유럽의 표준화 공격전략'의 입장문(position paper)을 통해 유럽 차원의 표준화 규제 및 구조에 대해 제안하였다. 입장문은 DIN의 요구사항들을 반

영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규범 및 표준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유럽연합(EU) 수준의 표준화 로드맵 도입
- 주요 ICT 분야 표준화에 관한 국가 표준화기구와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 미래 기술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표준화를 이해
- R&D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시 표준화 고려 확대
- 표준화 보조금의 중소기업 표준화 비용 지원 및 연구개발비 지원
- '상호운용성 예산'을 도입하여 EU 부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표준화
- '표준화를 통한 우수성(Excellence through standards)' 연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의 EU 기금 제공
- 유럽의 모든 공개 입찰에서 표준 고려 확대
- 컨소시엄 표준이 위협하는 영역(예: 사물인터넷 등)의 유럽 표준화명령(mandate) 발행
- 표준화의 전략적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국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전략기구 신설

☞ (기사원문) https://www.din.de/de/din-und-seine-partner/presse/mitteilungen/unions-fraktion-verabschiedet-strategie-fuer-eine-standardisierungs-offensive-fuer-europa--800374

5. 영국 BSI, '자율주행차량 안전성 벤치마킹 보고서' 발간 (05월 12일)

영국 BSI(영국표준협회)는 영국의 CCAV(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의 후원으로 '자율주행차량 안전성 벤치마킹 보고서(CAV safety benchmarking report)'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성능 측정의 객관적 척도로 '디지털 코멘터리 주행(Digital Commentary Driving)' 기술을 제안한다.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한 주행 보장을 위한 디지털 코멘터리 주행은 운전자를 훈련하고 평가하는 기술인 코멘터리 주행과 유사하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간 인식, 결정, 반응, 피드백 과정의 연속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인식, 의사결정, 성과 지표 및 측정에 대한 합의된 반응 수집 능력의 평가를 지원한다.

☞ (기사원문) https://www.bsigroup.com/en-GB/about-bsi/media-centre/press-releases/2021-press-releases/june/digital-commentary-driving-the-new-safety-technique-that-can-help-put-automated-vehicles-on-our-roads/

Ⅱ.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6. 미국,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최종보고서 발표 (03월 01일)

미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해 행정부 및 의회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AI 가속화 경쟁과 갈등 시대에서 방어와 경쟁을 위한 정부 재편, 국가 재정비, 동맹국과 파트너 결집을 다룬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AI 시대에서의 미국 보호, Part 2는 기술 경쟁에서의 승리를 주제로 각각 7건, 8건의 권고를 제시한다. 이중 표준과 관련하여, (Part 1) 위험 관리 측면에서, AI 지원 및 자율 무기 체계의 개발, 시험, 사용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권고, (Part 2) 호의적인 국제 기술 질서의 구축 측면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의 글로벌 채택 촉진과 함께 국제 기술 표준의 무결성(integrity) 보호 등 2건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 (기사원문) https://www.nscai.gov/wp-content/uploads/2021/03/Final_Report_Executive_Summary.pdf

7. 미 의원, 기술표준제정의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법안 제출 (05월 03일)

미국 상원의원 Catherine Cortez Masto와 Rob Portman은 미국의 표준제정기구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백악관의 과학기술 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 'Technology Standards Task Force Act of 2021'

태스크포스는 미국이 신흥기술 중심의 표준제정과정에서 선도하는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기술표준(예: 5G 및 6G 무선통신기술, 인공 지능)이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또한, 표준 제정이 정부에 의해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개발된 전략의 이행을 위한 협력자 목록을 작성한다.

☞ (기사원문) https://www.nextgov.com/emerging-tech/2021/05/senators-introduce-bill-increase-us-influence-tech-standards-setting-processes/173750/

8. 유럽연합, '유럽의 디지털 10년' 기념 디지털 어셈블리 2021 개최 (05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포르투갈 의장단은 '유럽의 디지털 10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어셈블리 2021' 행사를 6월 1일~2일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일차 : 디지털 10년– 2030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 및 방법
- 2일차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슈퍼컴퓨팅, AI, 사이버 보안, 향상된 디지털 기술 등

*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유럽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 목표 및 방법에 대한 정책. '디지털 나침반'이라는 통신문(COM/2021/118 final)을 통해 4가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참고] 유럽의 디지털 나침반(Europe's Digital Compass)

1) 숙련된 디지털 시민과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 2030년까지 모든 성인의 최소 80%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2천만 명의 ICT 전문가를 고용 (젠더 융합)
2) 안전하고, 뛰어난 성능,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 2030년까지 모든 EU내 가정은 기가비트 연결을 갖추고, 인구 밀집 지역은 5G로 커버. 유럽에서 최첨단의 지속가능한 반도체 생산은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 EU에 10,000개의 기후중립적이고 고도로 안전한 에지 노드를 구현. 유럽은 최초의 양자 컴퓨터 보유
3)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 2030년까지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사용. 90% 이상의 중소기업은 최소한 기본 수준의 디지털 레벨에 도달. EU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두 배로 증가
4)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 2030년까지 모든 주요 공공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 모든 시민은 자신의 전자 의료 기록에 접근. 80%의 시민은 eID 솔루션을 사용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715

9. 유럽연합, 연구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발표 (05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의 글로벌 협력 전략(Communication on the Global Approach to Research and Innovation)'을 발표하여 국제 연구혁신 파트너십에서의 유럽연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친환경, 디지털,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2012년 수립된 '연구혁신에 대한 국제 협력 전략'에서는 EU와 제3국간 과학기술 관계를 구축하여 Horizon 2020의 국제적 영향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Horizon 2020에서 마지막 3년간 아프리카,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국가 및 지역 간 30여개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협력 플래그십'을 통해 협력을 가속화한 바 있다. 금번 전략은 변화된 글로벌 상황과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전략을 대체한다.

전략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규칙과 가치 기반의 연구혁신 환경 조성 - 전 세계 연구원과 혁신가들에게 다자간 개방형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지원

2) 연구혁신에 있어 상호이익이 되고 공정한 국제 협력의 장 조성

핵심 액션은 아래와 같다.

1) 연구혁신의 개방성과 가치 촉진 – 회원국과 국제 협력에 대한 원칙을 개발하고 파트너 국가 및 국제 대화를 통해 홍보

2) 상호이익과 공정 추구 - 강한 연구기반을 가진 비-EU 파트너 우선국가와 양자간 로드맵을 체결하여 공정하고 가치공유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 조성, EU 연구기관과 고등 교육기관을 위해 외국 간섭에 대처하는 지침 개발, 국제적인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의 현명한 사용에 대한 실천코드 제시

3)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활동 종합 - 다자간 전-대서양 연구 연합(All-Atlantic Ocean Research Alliance)을 통한 해상 협력 강화, 에너지 기술 혁신,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을 위한 연구혁신 정책 수립, 경제/문화적 정책인 신유럽바우하우스 정책 지원, 사회적 이슈(예: 6G, 기후변화와 환경 과제에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등)에 EU의 리더십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2030 디지털 나침반'의 국제 디지털 파트너십 지원, 보건 보안 및 보건 체계 준비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파트너십을 통합 협력 촉진, 유럽 및 개발도상국 임상 시험 파트너쉽 지원

4) 제3국과의 협력 조정 - Horizon Europe하에서 상호관심 분야 제안에 대한 국제 협력 조치 개발과 Horizon Europe와 연계 기회 활용, 아프리카 전략적 연구혁신 계획 개발, 미래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혁신 협력에 관한 EU-중국 간 공동 로드맵 합의 모색,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EU-CELAC(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액션플랜 전략 로드맵(2021-2023) 구현과 과학기술에 관한 아세안(ASEAN)-EU 대화 지원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465

10. 유럽연합, 유럽 디지털 ID 프레임워크 제안 (06월 0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에서 모바일 기기의 유럽 디지털 ID 지갑에서 전자 문서 공유, 신원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 디지털 ID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새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시민과 기업에게 국가 디지털 신분과 기타 개인 특성의 증명(예: 운전면허증, 졸업장, 은행계좌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서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디지털 ID는 유럽 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유럽 디지털 ID 지갑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공유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2022년 9월까지 일반 툴박스 구축을 위해, 회원국과 함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며, 법률적 절차와 함께 회원국 및 민간 부문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663

11. GPAI, AI의 책임 작업그룹(RAI WG) 2021년도 주요 프로젝트 소개 (06월 03일)

GPAI* 산하 'AI 책임 작업그룹(Responsible AI Working Group, RAI WG)'은 2021년도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 2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하였다.

*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의 AI에 대한 권고에 따라, 2020년 15개 창립회원이 공동 발족한 글로벌 파트너십(15개 창립회원: 한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미국, EU,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폴, 슬로베니아, 영국, 멕시코, 인도). AI 관련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AI 추진 활동 공유

-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AI 전략 : 기후 행동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책임 있는 글로벌 AI 채택 전략 개발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 있는 AI :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추천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측정과 합의된 질문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기술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인의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기사원문) https://www.oecd.ai/wonk/gpai-responsible-ai-2021

12. 독일연방의회, '지정학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표준화' 논의 (06월 07일)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는 6월 7일 "지정학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표준화"를 주제로 전문가 토의를 개최하였으며, 디지털 주권을 위해 유럽의 협력과 연구 자금 증대,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전문가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WP, 과학및정치재단) : 중국과 미국의 '기술 전쟁'에 대한 이중 전략으로, 독일과 유럽은 자국 방어와 함께 지정학적 대립의 패턴을 깨뜨리려는 노력 필요

-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 기술 표준을 정한 자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참여 국가들의 장기적인 의존성을 창출. 유럽은 혁신에서 표준화로의 과정을 단축해야 하며 유럽과 독일의 연구 자금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됨

- (DIN, 독일표준협회) : 국가별로 다른 '표준화 철학'을 가짐. 유럽은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이를 국가표준을 대체하는 반면, 중국은 자체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에 크게 관여. 중국은 다가오는 표준강국임. 표준은 전략적 도구이며, 국가 표준화 전략이 요구됨

☞ (기사원문)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23-pa-auswaertiges-844396

13. G7, 정상선언문 발표 – 디지털 기술 표준 협력 프레임워크 지지 (06월 13일)

주요 7개국(G7)은 6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정상선언문(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e)을 발표하였고, 디지털 기술 표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 개발에 있어 산업계 주도의 포괄적인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함을 재확인

- 2021년 9월 '미래기술포럼(Future Tech Forum)'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역할을 논의, 11월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Summit'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

방적이고 인간중심의 접근 방식을 위한 파트너들을 결속할 예정

- 핵심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개발기구의 참여, 산업계의 자문 등을 포함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표준기관 간 표준 개발 역량 강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지원을 포함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해야 함.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에 관한 G7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G7 Collaboration on Digital Technical Standards)'*를 지지함

  * G7 디지털기술 장관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된 바 있음(2021.4.28.)
    - 관련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7-digital-and-technology-ministerial-declaration

☞ (기사원문) https://www.g7uk.org/wp-content/uploads/2021/06/Carbis-Bay-G7-Summit-Communique-PDF-430KB-25-pages-1-2.pdf

14. 미국-EU, 무역 및 기술 협의회 출범 합의 (06월 13일)

미국은 유럽연합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EU 무역 및 기술 협의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출범에 합의하였다.

위 협의회는 양 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주요 정책 조정,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 혁신을 촉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 참고 : EU는 기술, 무역 및 표준에 대한 협력을 위해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20년 12월)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79)

☞ (기사원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15/fact-sheet-rebuilding-revitalizing-and-raising-the-ambition-of-u-s-eu-relations/

Ⅲ.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15. ISO TC211 WG1 (공간 정보, 프레임워크 및 참조 모델 작업그룹)

국제회의명	장소/기간
ISO TC211	원격영상회의 / 21.06.07. ~ 21.06.11.
쟁점사항	**대응전략**
- 다수의 공간정보 표준에서 참조되고 있는 ISO 19103 개념적 스키마 언어(Conceptual schema language) 등에 대한 개정방향을 논의함 - ISO TC211 registry 표준인 ISO 19135-1 표준의 개정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필요성을 논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ISO 19103, 19135-14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준이므로, 개정논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함

16. OGC Aviation DWG(항공 분야 작업그룹), UxS DWG(무인시스템 분야 작업그룹)

국제회의명	장소/기간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June Virtual Meeting, 2021	원격영상회의 / 21.06.14. ~ 21.06.18.
쟁점사항	**대응전략**
- 기존 OGC 표준들을 API 형태로 재편하고자 하는 표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Aviation, UxS와 관련된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있어, 의미적(semantics)인 면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시맨틱과 관련된 표준화를 논의하는 부분과의 협력이 보다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Aviation 및 UxS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논의에 조기참여하고, 향후 이를 모니터링 및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TTA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 참고